

[P2-13]

열량 영양소 섭취와 폐경 전 여성 유방암의 발생위험: 환자-대조군 연구

도민희, 이상선, 정파종¹, 이민혁²

한양대학교 식품 영양학과, 한양대학교 일반외과¹, 순천향 대학교 일반외과²

국내 유방암 발생률이 여성암 중 1위를 차지하여 그 중요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, 현재 식이 요인과 유방암 발생 위험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이 서구의 자료로, 국내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다. 또한 국내 여성 유방암은 폐경 전 젊은 여성에서의 발생 비율이 높음을 고려할 때 영양소 섭취, 특히 지방과 단백질 섭취와 유방암 발생의 연관성에 관한 역학적 연구가 필요하다.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폐경 전 여성에서의 유방암 발생과 영양소 섭취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환자-대조군 연구를 실시하였다. 환자군(n=196)은 서울 시내의 3차 진료기관인 대학병원 2곳에서 새로이 유방암으로 진단 받고, 수술 및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20대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. 대조군(n=392)은 병원 대조군으로 환자군과 동일기간내에 동일 병원에 입원 및 외래로 방문한 환자로서 환자군과 연령(4세차) 및 폐경 상태가 동일하게 선정하되 1:2로 짝지어지도록 선정하였다. 연구 기간은 1999년 3월부터 2003년 8월까지로, 개별 면담을 통해 자료를 얻었다. 설문을 통해 얻은 자료는 SPSS 11.0으로 통계 처리하였고, 각 변수들은 un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를 통해 분석하였고, 각 군간의 경향성 파악을 위해 경향성 검정을 실시하였다. 이때 각 혼란변수 및 총 열량에 대한 보정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. 단백질 중 동물성 단백질을 하루 51.8g 이상 섭취하는 경우 유방암 발생이 1.6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또한 당질 중 조섬유소 섭취에 따른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하루 섭취 14.3 g 이상인 고섭취군의 경우 교차비가 0.51로 유의적으로 유방암 발생을 낮추는 보호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, 경향성 또한 유의적이었다. 지방섭취에 따른 발생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총지방섭취와 총 콜레스테롤에 대해 분석한 결과 유방암 발생과 관련이 없었다. 각 지방산에 대한 분석에서, 포화 지방산 섭취가 하루 19.8g 이상인 상위 섭취군의 경우 유방암 발생이 약 1.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, 경향성 또한 유의적으로 나타났다. 각각의 지방산 섭취는 유방암 발생과 유의적인 관련성이 없었다.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한국 여성 특히, 폐경 전 젊은 여성의 경우 유방암 발생에 있어 동물성 단백질 섭취 및 포화지방산 섭취는 그 위험 인자로, 섬유소의 섭취는 그 보호 인자로 나타났으므로 동물성 식품에 대한 섭취 주의 및 섬유소가 많은 식품의 섭취 권장 등의 세부적인 식이 지침이 필요할 것이다. 무엇보다 다수를 대상으로 한 코호트 연구로의 접근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.